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SNS 이벤트를 준비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 '부채야 놀자-선면화 그리기'는 전주부채문화관과 함께 진행하는 전통 한지 부채를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어린이가 부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 부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참가신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교육)어린이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jeon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박물관에서

전주박물관, 방학 맞아 '오롯한 고을 완주'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보며 전라북도 '완주'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전시를 관람한 후 완주의 대표 문화재를 활용한 '나만의 기방 만들기'(실크스크린)와 가족의 소원이 담긴 곡옥 팔찌를 만드는 시간도 마련했다. 참가신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교육)어린이에서 할 수 있다. '선비야 놀자'는 어린이박물관 1층 책 놀이터에서 선비 관련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이벤트이다. 참가자가 책놀이터의 선비 관련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써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하여 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 '전북의 보물 정원'은 상설전시실 2층 역사실에서 전주의 옛 모습을 그린 '완산부지도 10폭병풍' 등 6건 6점의 전북도의 보물을 어린이의 시선에 맞게 소개했다. 관람 후 전라

북도 보물에 대한 생각을 국립전주박물관 인스타그램 '전북의 보물 정원'에 댓글을 달면, 매일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 오는 10일 어린이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부채야 놀자-선면화 그리기'는 전주부채문화관과 함께 진행하는 전통 한지 부채를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어린이가 부채에 직접 그림을 그려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 부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참가신청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교육)어린이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5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jeonju.mus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문체부 “日 아이치 트리엔날레 전시 중단, 유감”

“문화·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조속 정상화 희망”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전시 '표현의 부자유권-그 이후'가 중단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김진곤 문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세종시 문체부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일본 아이치현에서 우리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하며,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체부의 뜻은 도쿄문화원이 트리엔날레조직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열린 아이치현미술관이 위치한

나고야 시는 도쿄문화원 소관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간에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는 더욱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양국 간의 소통창구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체부는 한일 정치 문제가 문화·예술 분야까지 영향을 끼치며, 일부 강경론자들이 문화에 일본 문화에 대해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은 일본 내에서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

아름다운 섬진강 풍경을 캔버스에

순창, 섬진강·강천산 전국사생공모전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순창군이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과 청정 자연생태지인 섬진강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풍경)을 주제로 한 제5회 섬진강, 강천산 전국사생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지역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대학생 포함 일반부와 초, 중, 고등학생(재학생 포함)으로 학생부로 나눠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순창군 대표관광지인 강천산과 섬진강 등 관내 아름다운 자연경관(풍경)을 소재로 한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고, 일반부에서는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다. 초등부는 풍경화, 중·고등부(재학생 포함)는 풍경화,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로 출품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8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순창군 육천미술관(☎063-650-1638)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순창군을 방문한 인증샷(사진, 관내 관광지 및 유원지 입장권, 상점 및 식당 영수증 등)과 함께 작품에 출품표를 부착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출품하면 된다. 다만, 1인 2작품 이내로 출품이 가능하며, 1인이 중복 수상할 경우 최고 수상작 1점에 대해서만 시상할 예정이다. 또 일반부(대학생 포함)에서 특별상(이상)을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순창군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제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 전국 많은 미술인이나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태권도원, 11일까지 블로그 기자단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태권도원 공식 블로그 및 SNS 등에서 활동할 기자단을 11일까지 모집한다. 기자단은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를 직접 취재한 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기자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태권도원 공식 SNS 채널 상에서 활동하며 위촉장을 비롯해 활동비와 기념품 등을 제공받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용재 홍보마케팅부장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지

원할 수 있다"라며 "세계 태권도 성지이자 2019~2020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원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tkdwon_blo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070-4219-7482)을 통해 문의할 수도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